

## 해외 공기청정기의 국내진출

황정호 | 연세대학교 교수

E-mail : hwangjh@yonsei.ac.kr

### ■ CO<sub>2</sub> 감축보다 청정에너지 개발 시급

올해 들어 홍수·가뭄 등 기상이변이 잇따르면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종전의 '규제' 일변도의 시각에서 대체 에너지 개발 등 대안(代案) 접근법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1일 보도했다. 북미의 과학자 16명은 과학전문지 사이언스 최신호에서 "화석연료로 인한 온실가스 효과는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며 "기술혁신을 통한 청정에너지 개발만이 지구를 온난화에서 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뉴욕대학의 마틴 호퍼트(Hoffert) 교수 등 미국·캐나다 대학의 교수 16명은 '사이언스'에 발표한 논문에서, 지구 온난화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은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값싸고 풍부한 화석연료를 대신할 만한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계속 늘 수밖에 없고, 산업화에 주력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경우는 더 그렇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일한 해결책은 아폴로 발사 계획만큼이나 거대하고 야심찬 대체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에 착수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치권의 의지와 국제적 협력, 막대한 자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 지구의 기본전력 소요량은 앞으로 50년 내에 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체에너지 개발을 위해, 핵융합을 이용하거나 맨해튼 크기의 태양 에너지판을 우주에 설치, 태양력을 이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NYT는 지난 1일 인도 뉴델리에서 막을 내린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회의에서의 초점은 "지구온난화 방지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그로 인한 충격에 대한 '대응'에 있었다"며, 지금까지 쟁점이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을 둘러싼 찬반이었음에 비취볼 때 '중대한 변화'라고 지적했다. '현실적 대응'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지난 100년간 대기에 퍼진 온실가스 양을 감안하면 기상이변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각종 재원과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보다 그 피해를 줄이는 방안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NYT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 최근 빈번한 기상이변과 환경 현실에 대한 자각 등을 들었다. 유럽의 대홍수, 히말라야의 산사태, 남아시아·아프리카의 가뭄 등 올해 기상이변은 최고조에 달해, 9400명이 숨지고 56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린피스의 커트 데이비스(Davies) 연구실장은 "현실 적용 방식은 오존층 파괴에 맞서 싸우기 위해 '선글라스와 모자를 착용하라'는 논리와 같다"고 비판했다.

### ■ 해외 공기청정기의 국내진출

최근에는 외국계 가전회사들이 내년 한국시장에서 유통망 정비로 판매거점을 확보하고 고객 서비스 강화와 각종 매체 광고에 주력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공언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과의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들 외국업체는 일본 회사들을 중심으로 대중적 제품보다는 가격과 기술

에서 차별화 된 고가의 첨단 제품들로 국내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여 고급프리미엄 가전을 추구하는 삼성·LG전자 등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국내 가전 업체들과도 충돌이 예상된다. 일본의 샤프전자는 지난 11월 28일 사업전략 및 공기청정기 신제품 발표회를 갖고 내년도 국내시장에서 LCD TV, 플라즈마 클러스터 공기청정기, 캠코더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 1천4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았다. 전자수첩으로 유명한 샤프전자가 공기청정기를 앞세워 환경가전시장에 진출한다. 샤프전자는 12월 5일 플라즈마 공기청정기를 메이저 가전으로 육성키로 하고 이달 중 플라즈마 클러스터 공기청정기 3가지 모델을 출시할 예정이다. 샤프전자 홍보팀장은 “이 제품은 세계 최초로 독감 바이러스인 인플루엔자 및 MRSA균(병원감염균)을 살균하는 기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음이온은 물론 같은 수의 양이온을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소개했다. 샤프의 공기청정기는 현재 일본에서 34%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2002년 가전부문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홍보팀장은 “대기업이 참여

하지 않은 시장인 만큼 성장잠재력이 큰 시장이다”며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조만간 30%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는 공기청정기를 탑재한 진공정소기, 에어컨, 냉장고, 가습기 등 탑재상품도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에서 큰 시장점유율을 기록한 샤프전자의 공기청정기는 샤프전자 자체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개발한 제품으로 기존의 일본, 미국 등 국내의 공기청정기 제품과 주로 항균·항바이러스 부분에 차이를 두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인체에 있어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유해성이 존재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물리적 환경을 일반적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하게 조성하여도 자신들의 특성을 변화하여 살아남을 수 있기에 제거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뒤따른다. 또한 사람들이 느끼기에도 일반적인 미세 입자보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심은 더 클 수 있다. 샤프전자의 공기청정기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기술을 앞세워 일본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